

충남도립대, 3D 프린팅 활용 학생 창업 기업 ‘아벤 스튜디오’ 설립

✎ 임덕철 기자 | ㉠ 승인 2026.09.17 13:04

전공기술과 지역자원 접목해 청년 로컬창업 모델로 성장
청양 고추·구기자 축제서 직접 개발한 로컬 굿즈 선보여



사진=충남도립대

[대전충청본부 = 주간한국 임덕철 기자] 충남도립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 학생과 졸업생이 협력해 창업기업 '아벤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인테리어 소품과 청양 지역 특색을 담은 로컬 굿즈 개발에 나섰다.

아벤 스튜디오는 전공 과정에서 습득한 설계, 디자인, 3D 프린팅 역량을 실제 상품으로 구현하며 대학의 ANCHOR사업이 추진하는 '로컬정주형 창업지원체계 고도화'를 바탕으로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양의 지역자원과 특색을 디자인에 적극 반영해 로컬 창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 중이다.

최근 개최된 제27회 청양 고추·구기자 축제에서는 직접 개발한 3D 프린팅 인테리어 소품과 로컬 굿즈를 선보여 현장에서 소비자 반응과 상품성을 확인했다. 아벤 스튜디오는 앞으로도 3D 프린팅 기술과 지역자원을 결합한 창업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 축제 및 관광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창업활동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기술을 실제 창업과 상품화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충남도립대학교는 학생들이 지역에서 전공을 살려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 로컬창업'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벤 스튜디오는 한국관광공사의 '청년관광두레 플러스사업'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재료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충남도립대학교는 앞으로도 ANCHOR사업을 중심으로 학생 전공역량과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아이디어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창업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명규 총장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이 학생의 삶과 지역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학생들의 도전이 지역에서 일자리와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대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이 지역에 머무르게 하려면 이곳에서도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덕철 기자 kdc9490@hankooki.com